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16년 만에 준공

미륵사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급부상
정현을 시장,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등 관광 시너지 기대

익산=고운영 기자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16년 만에 준공되면서 익산시가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갖춘 역사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8일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공사 현장을 찾아 마무리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국비 포함 386억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총 면적 10만8,743㎡ 내에 전통문화체험관, 광장, 관광안내소, 주차장, 녹지공간 등의 다양한 관광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전통문화체험관은 현재 운영중인 관광안

내소와 함께 지난해 1월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완공에 앞서 익산시는 지방도 722호선 1km 구간 이설 및 4차선 확장을 지난해 8월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미륵사지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 편의 만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미륵사지 관광지는 2020년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며 "이번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수려한 조경과 다양한 야간 경관조명 등이 갖춰져 세



계유산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최근 개관한 어린이박물관 등과 함께 관광도시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월 말까지 미륵사지 관광지 내 편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준공행정절차 등 최종적으로 전복도 협의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주군 새해 주요업무 계획보고회 군정업무 발전 방안 모색 나서

무주군이 새해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갖고 군정업무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는 성과와 반성, 업무추진 방향 등을 검토하고 현안 및 각 부서에 대한 업무를 공유하며 추진 방향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7일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업무보고를 통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민선7기 군정방침의 실현과 임인년 추진할 '오감만족 문화관광', '도약하는 지역경제' 등 7대 분야 역점시책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와 공직자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모든 역량과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역동적으로 추진할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주력하는 등 도시다운 규모와 환경을 갖춘 국가 예산 확보에 역량을 발휘해 나간다는 각오다.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군정 추진을 통해 정주권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를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무주다운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형열 기자

남원시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본격화

시,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5년 동안 60억원 투입

남원시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이 본격화된다. 남원시는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의 '리스타트 지리산힐링스테이'와 (주)지오피도시건축사사무소의 '리프레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리산허브밸리를 감성 정원으로 꾸며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년 동안 6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설계공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조경분야 설계공모에 선정된 '리스타트 지리산힐링스테이'는 공간구성 밸런스와 동선계획의 효율성이 우수하



고, 무엇보다 수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매력물의 감성적 연출 가능성이 탁월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실내건축 분야 '리프레시'는 중앙계단을 절제하고 자연 채광, 층고 확장을 통해 외부 차경을 과감하게 끌어들이고 내부 개방감을 확보한 점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영규 기자

무주군, 청년 가게임차료 지원-청년 키움 두배 통장 지원

무주군이 청년들의 정주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과 청년 키움 두배 통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국 군 단위 농촌 지자체의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선제적 정책이 무주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군의 신규 사업이다.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방역수칙으로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창업 실적에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운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

비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월 임대료 50%를 최대 20만 원 한도로 10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하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4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 4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가 등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산업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군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군비 1억 원을 확보하고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형열 기자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조성 '속도'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 2월까지 공사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관계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조성사업 최종보고회'를 갖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전진식 기념관 조성 자문위원장, 신귀백 익산 민족예술총연합회 회장,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박찬환 대표, 원광대학교 김주용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해 최종 마무리 작업을 거친 후 이달 중 기념관 내부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단체들과 꾸준한 간담회와 두 차례 보고회를 거쳐 기념관 건립 기반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용역을 진행했으며, 이와 더불어 항일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4·4만세운동 기념공원 정비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은 일제강점기 전후로 치열하게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지역임에 비해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장소로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규창 기자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급시기 변경 시행

지역농협서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남원시는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급시기를 변경해 추진키로 하고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생활과 영농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벼 재배농가는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산간부(운봉농협·지리산농협)는 3월부터 9월까지, 평야부(남원농협·춘향골농협)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지급시기를 변경해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60포/40kg)~272만8,000원(440포/40kg)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는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잔여금액은 수확완료 후 2022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환산해 정산 지급된다. /박영규 기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익산시장 출마선언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익산시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청장은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승리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힌 조 전 청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오늘이 행복한 시민,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익산다운 익산'을 기치로 그동안 준비한 익산 발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익산 발전을 위해 ▲KTX 익산역과 국가식물플러스트를 축으로 한 2개의 중심



전략 ▲전국 최고의 복지·안전 도시 구축 ▲역사·문화·생태가 조화로운 관광산업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 ▲미래 도약을 위한 도시 디자인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고운영 기자

임실 치즈 테마파크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는 공익광고입니다.

